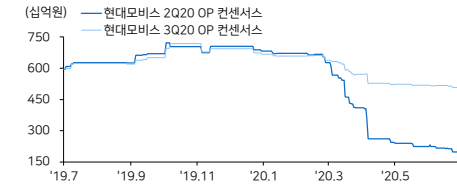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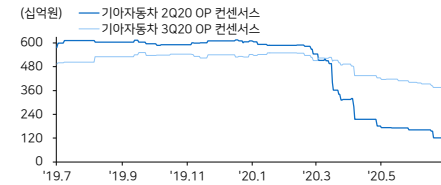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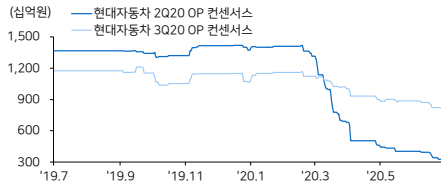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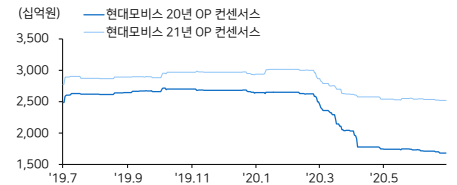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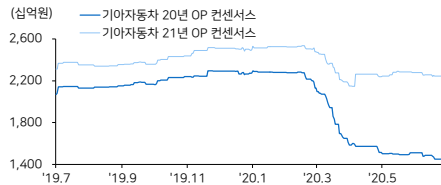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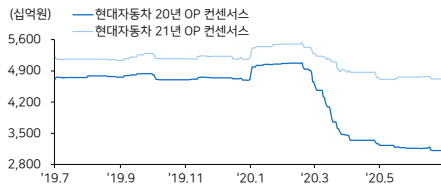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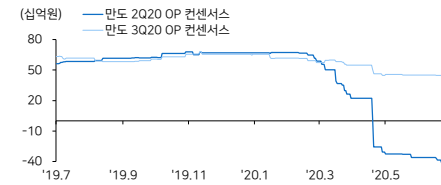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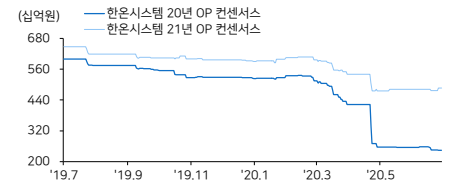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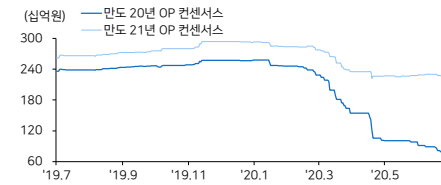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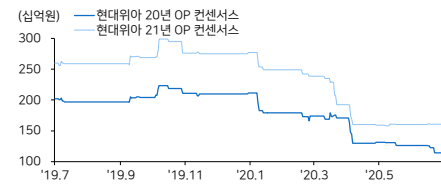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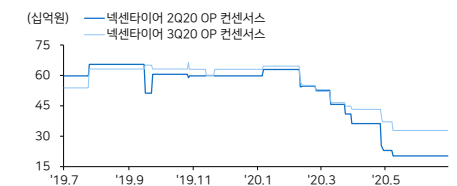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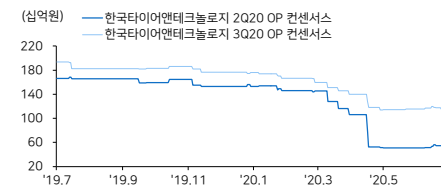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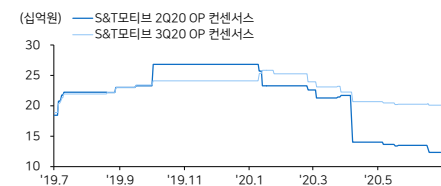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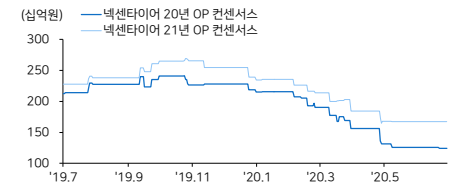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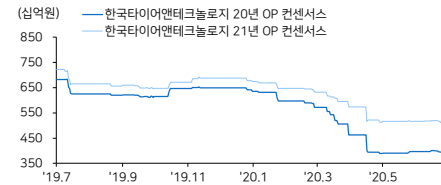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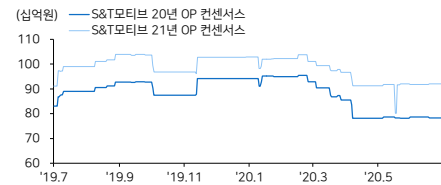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 · 기아차, 2분기 불황 속 흑자 선방...하반기 반등 기대 (데일리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불황 속에서도 2분기 영업이익 감소폭을 최소화하며 선방. 해외 경쟁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내는 와중에 지켜낸 흑자라 더욱 긍정적인 신호. <https://bit.ly/3ht0BX9>

기아차의 자산과 '작년 실적, 지금 포기할 수준 아니다' (서울경제)

코로나19 영향에 을 2·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기아차가 컨글에서 작년 실적을 지금 포기할 수준은 아니라고 발언. 신차 골든 사이클을 통해 하반기는 코로나19라는 외생 변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적을 내겠다는 다짐을 한 것. <https://bit.ly/39oeH9n>

그린 뉴딜에 무리하는 4대그룹 '배터리 동맹'에 숨은 고차방정식 (일요신문)

최근 두 달 사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배터리와 관련해 삼성과 SK, LG그룹 총수들과 연해 회동을 하는 '빅 이벤트'가 벌어짐.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인 만큼 조만간 체계 '빅4'의 연방 '전선' 구축이 본격화될 것인 전망이 나옴. <https://bit.ly/2D1yQ9j>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2027년 상용화 (한국경제)

삼성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널리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정성이 높고 용량이 큰 차세대 제품으로 배터리 · 완성차 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https://bit.ly/2OWLRmZ>

현대차 '하반기 G80 · GV80 · 아반떼로 쏘아 35만대 판매' (파이낸셜뉴스)

현대 · 기아차가 하반기 신차 모델을 활용한 수요 회복기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와 글로벌 판매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 <https://bit.ly/3QNb3FM>

현대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글로벌 인기 폭발 (한국일보)

'코나 EV'가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음. 지난 '18년 4월 판매가 시작된 코나는 알리익인 가격과 빠른 충전 속도, 258마일에 달하는 주행거리 등으로 고객들을 사로잡으며 출시 2년만에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넘어섬. <https://bit.ly/3eSNOLN>

전기차 시장 독주하는 테슬라...韓 파견 도전 성공할까 (뉴스원)

테슬라가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테슬라에 배터리 납품을 늘리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현대차를 중심으로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패권을 도전할 전망. <https://bit.ly/3eVT0U0>

FCA · 웨이모, 자율주행차 개발 협업 강화 (IT조선)

FCA와 구글 산하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 웨이모가 협업관계를 강화한다. 양측은 자율주행차 개발분야를 상용차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FCA는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에 웨이모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키로 함.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3/2020072300513.htm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